

나경원 “세대 통합”·주호영 “야권 통합”·이준석 “공정 경쟁”

광주서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들 첫 합동연설회 정권 탈환 해법 엿갈려...호남 당원 확보 한목소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내 혁신과 야권 대선주자들의 단일화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보수 진영의 정권 탈환을 위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나경원·주호영 후보 등 중진들은 세대통합과 야권통합, 후보 단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이준석 후보는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30대 '이준석 돌풍'을 감안한 듯 "세대 통합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장년의 정치 참여를 확실히 열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이라면서 "대선 열차를 국민의힘 후보로만 출발시키지 않겠다.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을 다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야권 주자를 한꺼번에 대선 열차에 태울 것이다"면서 "추석이 지난 9월말부터 야권 대선후보들이 국민의힘 통합열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자유롭게 체득한 첫 세대'라며 "역사상 첫 30대 정당 대표가 된다면 그 의미는 정말로 각별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당의 운영도 민주적으로 하겠다"며 "인사는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고, 공천은 실력 검증에 이어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최우선이 되

는 민주적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일 반론에 걸맞게 개방과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 후보는 경쟁자를 하나씩 저격하면서 자신을 야권 대통합의 적임자라 부각했다. 주 후보는 먼저 나 후보를 향해 "잠뎠, 자장면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절대 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중도를 허황된 것이라 믿는 후보의 용광로에는 무엇이 담기겠나"라고 독설을 날렸다. 이 후보에게는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진짜 통합과 혁신을 할 당대표, 싸워서 이겨본 준비된 당대표는 오직 한 사람 저 주호영뿐"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도 선두권 주자들을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 돌풍을 가리켜 "정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입만 있는 선언적 마술사 전당대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헌탄했다. 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계파론을 끄집어낸 나 후보와 주 후보를 향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조경태 후보는 "여야를 떠나서 가장 필요한 혁신은 공천 혁신"이라며 "대선 후보부터 지방선거 후보까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자와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나경원·조경태·홍문표·이준석 후보,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입해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원 투표에서 호남비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당 대표 후보들은 안타깝다면서 호남 당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경원 후보는 "호남 당원을 그동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호남당원의 확보와 확대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문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 32만명 중에 6600명밖에 되지 않는

호남 당원을 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각각 2명씩을 당선권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호남에서 더 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당원이 우리 당원들의 0.8%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데이터가 공개됐다"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이날 앞다퉀 당의 불모지인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전북 익산이 고향인 조순진 후보는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기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취재한 저는 지금 감개무량하다"며 "호남의 딸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권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대원·원영삼·조해진 후보 등도 광주와 호남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신복지 전남포럼' 창립...정세균 반도체·백신 챙기기

이, 아픈많은 전남 보상 자격 충분 정, '백신 접종 캠페인' 스타트 이재명 지지모임 내달 여수서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주말과 휴일을 맞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말인 29일 각각 호남과 충청으로 달려가 바다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여수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모임인 전남민주평화광장이 내달 1일 출범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9일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신복지 전남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창립총회 후 특강에서 "전남은 자랑스러운 역사만큼 아픈도 큰 지역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풍족하고 활력 넘치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화, 부강한 농도(農道), 관광객 1억명 시대 달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신복지 포럼은 이 전 대표의 전국단위 지지조직이다. 이날 전남포럼 창립총회에는 지역 인사 2만 50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 전 대표 측은 "지자체가 상승세를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남포럼의 대대적 출범을 계기로 호남 지자체가 상승세를 탄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오전에는 순천 역전시장 방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전 총리도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 있는 반도체 업체 '솔브레인'을 찾아 국내 반도체 업계 현황을 경청했다.

현지 간담회에서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어렵다"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법·제도 정비,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충남 당진과 아산, 태안 등을 돌며 시도 의원 및 각계각층 인사들과 만나 충남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당내 백신 접종 권장 운동인 '슬기로운 백신 접종 캠페인'의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잃어버린 일상 회복의 지름길 오직 백신 접종입니다. 방역 사령관의 경험을 담아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적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YTN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출연해 대권 경쟁 상대의 장점을 묻는 말에 "이재명 지사는 추진력이 있고 이를 이야기한다. 시원시원하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안정감과 경륜이 있다고 본다"며 "두 분 모두 우리당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깨어있는 전남도민의 조직된 힘' 기치를 내세운 전남민주평화광장이 전남에서 출범한다. 전남민주평화광장은 내달 1일 오후 5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공동대표단, 전남 22시군 지역대표 발기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및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광주민주평화광장 상임공동대표 이형석(북구), 민형배(광산구),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간성) 등 국회의원 1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전남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日 영토 표기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 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산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즉각 수용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행위는 결코 묵

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요구가 도쿄올림픽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위배이고 올림픽 정신 훼손"이라며 "IOC는 스스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특별지역 2년 재연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30일 "산업부가 목포·영암·해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2년간 재연장을 결정했다"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목포·영암·해남을 비롯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세

균 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의 시행령 개정 주문 이후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을 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주거, 담양양리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암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황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심홀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상가매매 (상무/다가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

-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 4개동 (월수익 3천) 년 4억 / 매가 52 (용 25억)

-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